

제134호

발행일 : 서기 2017년 2월 1일
창간일 : 서기 1983년 8월 15일
구독신청 : (02) 2244-3717
070-8807-3717
FAX : (02) 2243-1073
E-mail : andongkimgu@naver.com

安東金氏
大宗會報

발행인 : 김봉희
편집인 : 김상근
인쇄인 : 김원희
발행처 : 안동김씨대종회
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 131
(우) 02435
홈페이지 : andongkimc.kr

제 24대 신임 대종회장님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승조목족 정신 함양에 힘 쏟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친 여러분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13년 시작되었던 대동보 발행이 출발 3년여 만에 전종친의 합심 협력으로 무사히 마무리 되어 지면을 통하여 고맙고 감사함을 인사 올리는 바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대역사인 기미보 발간 후 36년만인 2015년 을미 대동보를 무사히 발행하게 됨을 전종친과 함께 자축을 올리며 지난 2016년 12월 23일 을미대동보 발간 고유제를 올렸습니다.

그동안 편찬위원님 모든분과 수단위원님 그리고 수권편찬위원님과 관계자 모든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을미보 발행중 옥에 티였던 발간중지 및 배포금지 가치분신청은 기각되었으나 손해배상 본안 소송은 현재 서울 북부지원에서 진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송사 종결후에는 전종친 단결과 화합에 실망과 허탈과 비애를 느끼게한 장본인에게는 단호한 응징을 하여야함을 전종친께 먼저 알려드립니다.

안동김씨대종회가 존속하는한 또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

생하지 않도록 사전 방지책으로도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치밀하고 계산된 음모를 정리하면 2011년 회장 선출시 이력서 제출 강요에 대한 계획부터 2011년 여름 회관 3층을 자기 소속 파에 양도 하라는 억지주장에 이어 2013년 알림장이라는 해괴망칙한 가명(추정)으로 작성된 임원진께 살포한 건과 경찰서장(신문사) 귀하 제목으로 알림장 배포건과 고발장 및 8월 3일 회의 사태에 대한 해명요구서 및 2013년 8월 9일자 등기우편(본인명의 등기발송) 경고장등 가명과 실명으로 발송한 서류를 증거물로 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으려 준비 중에 있다는 사실도 알려드림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탄할 일은 전직 종무 총괄책임자로서 깨알만큼의 양심도 없으며 후회도 반성도 사과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친여러분 오는 3월 23일 제50회 정기총회에서 새로 추대되는 제24대 회장님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승조목족정신 함양에 힘 쏟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종친여러분의 건강과 하시는일 소원 성취하시길 빌면서 안녕히 계십시오.

2017년 1월
安東金氏大宗會 會長 金鳳會 拜上

공 고

안동김씨대종회 제50회 정기총회 개최

2017년도 안동김씨대종회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종친 여러분께서는 꼭 참석하시어 대종회 발전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김씨 대종회 회장 김 봉 회

- * 일시: 2017. 3. 23(목) 오전 11시
- * 장소: 백범 김구 기념관 (02)799-3400
- * 참석 회비: 30,000원

상정안건

1. 2016년도 수입·지출 결산보고
2. 2017년도 예산안 심의
3. 2017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4. 기타 상정안건 심의
5. 제24대 대종회장 추천 승인

백범김구기념관 찾아오시는 길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임정로 26
전화 : 02-799-3400

대중교통

- 지하철 지하철 6호선(효창공원 앞)
- 버 스 마을버스 : 마포 17, 용산 04, 마포 03
간선버스 : 400, N16, 163



丁酉年 揮毫

為國忠誠

為民正筆

丁酉年元旦陽堤金在峻

安東金氏大宗會 顧問 陽堤 金在峻 書

작가는 서기1942년 廣州에서 出生 書藝界에入門하여 全國書藝公募大展(2004년)京畿道美術大展(1990년)등 各級公募展에 多數 入賞하였으며 京畿道 廣州 領議政公(諱弘度)事蹟碑,安東에 忠烈公(諱方慶) 鶴峰 金誠一公의 詩碑, 忠北오창에 貞簡公(諱永煦)의 語錄碑 廣州 許蘭雪軒詩碑등 많은 作品이 있으며 현재 京畿道 城南에서 陽堤書藝學院을 열어 後學을 指導하고 있다

◆ 2017년 1/4분기 대종회 행사일정 ◆

● 회장단회의

일 시 : 2017년 2월 23일(목요일) 오전 11시
장 소 : 대종회관 회의실
참석대상 : 대종회 회장단
안 건 : 안동김씨대종회 회칙 규정에 의한 토의안건
24대 대종회장 추천자 추대 결의 건



● 이사회의

일 시 : 2017년 3월 9일 (목요일) 오전 11시
장 소 : 백범기념관
참석대상 : 대종회 고문, 회장단, 이사
안 건 : 연간 세입 세출, 2017년도 예산안 검토
기타 회칙에 규정한 안건토의



/알림/ 春季 享祀 일정표

享祀 先祖님	享祀日	場所	備考
判書公諱愼設壇 大提學公諱承用之墓 評理公諱厚之墓 郡事公諱七陽之墓	4월9일 양4월두번째 일요일 陰3月13日	전남 강진군 작전면 토마리 齋室 강진군 군동면 금강리638	宗會長 重默 010-8680-8878
大護軍公諱儒之墓	4월10일(월) 음3월14일	나주시 금천면 죽촌리54(상촌)	派宗會長 泰植 010-3624-3912

● 정기총회

일 시 : 2017년 3월 23일(목요일) 오전 11시
장 소 : 백범기념관
참석대상 : 안동김씨 대종회 회원
안 건 : 2016년도 결산안 2017년도 예산안
기타 회칙에 규정된 안건
안동김씨대종회 제24대 회장 선출 건
참석회비 : 3만원





謹賀新年

丁酉 새해를 맞이하여 그동안 보내주신 聲援에 感謝드립니다. 새해에도 大宗會發展을 위하여 열심히 努力하겠습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關心과 聲援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安東金氏 50만 宗親과 家庭에 健康과 幸運이 充滿 하시길 祈願합니다.

安東金氏大宗會 任員 一同

顧問

(密)榮應 (郡)在化 (典)在旭 (典)大敦 (副)圭章(在)
(文)在承 (文)在湔 (文)琮會 (文)光宇(泰) (文)光道(泰)
(安)在德 (都)在正 (都)昌會 (都)會秀(會) (都)熙允(泰)
(都)元重(植) (大)京宗(會) (提)永默 (提)相祚(在)
(提)相天(在) (提)俊會 (提)泰煜 (提)泰完 (按)觀默
(按)在澤 (按)璇會 (按)泰龍 (翼)在寬 (翼)在琿
(翼)在勳 (翼)基成(在) (翼)善會 (翼)泰英 (翼)容大
(翼)花子(容) (書)在峻 (書)詳浩(植) (正)洙鎮(泰) (正)元植

任員

名譽會長 (提)南應(會)
會長 (都)鳳會
副會長 (郡)重默 (按)榮萬 (密)在英 (開)履暉(植)
(郡)鴻洙(泰) (典)興植 (副)元鎬(會) (文)榮煥
(安)洪基(泰) (都)榮福(泰) (大)泰植(泰)

監事

(提)天應(會) (判)奉善(泰) (按)泰文
(翼)錫漢(在) (書)喆浩 (正)泰石
(翼)東洙(植) (翼)海壽(會) (翼)鐘默 (典)春敦
(翼)在男 (翼)泰吉 (都)珽 (提)泰瑄 (按)春植

理事

(密)在敦 (開)雄善(容) (郡)俊默 (郡)壽男(在)
(郡)在夏 (郡)在二 (郡)泰榮 (典)泰振
(典)龍雨 (副)鍾大(在) (副)圭世(在)
(副)昌植(在) (副)泰亨 (文)榮潤 (文)亨默
(文)桂萬(會) (安)鳳基(泰) (都)時默
(都)遠中(植) (大)燦會 (提)在喆 (提)相基(在)
(提)天應(會) (提)貞應(會) (提)奎喆(泰)
(提)泰喆 (提)瀚植 (提)雲澈 (提)容恒
(判)奉國(泰) (按)在玗 (按)在鴻 (按)在晟
(按)興會 (按)辰會 (按)崙會 (按)泰琬 (按)泰永
(按)贊植 (按)亨南(容) (按)容元 (按)容周

(翼)榮棠 (翼)太圭(默) (翼)允默 (翼)在湜
(翼)在永 (翼)在源 (翼)在元 (翼)在澤 (翼)晟會
(翼)聖會 (翼)榮秀(泰) (翼)根植 (翼)英桓(植)
(翼)永植 (翼)康植 (翼)容世 (翼)容默
(書)嗽永(會) (書)圭銀 (正)泰仁 (郡)在九
(典)官敦 (按)聖會 (按)泰善 (翼)浩植
(都)熙勳(泰) (按)淳植 (翼)正默 (文)洙吉
(泰) (郡)成默 (典)憲德(容) (典)龍敦
(典)在清 (典)泰義 (翼)泰成 (按)辰熙(泰)
(翼)鐘會 (翼)善會 (提)章應(會) (都)一秀(會)
(都)大會 (都)運中(植) (提)奉會 (提)龍植
(提)雲仙(容) (按)炫秀(泰) (按)根植

事務總長 (提)相根

經理部長 孫閏順

常任有司 (都)大會

새해 인사드립니다. 판서공중회

먼저 용서(FORGIVE)하고 사랑(LOVE)하며 화합으로 하나(UNITE)되자



안동김씨대중회 전국 각파 및 지역중친회 회장님 그리고 전국 중친 여러분, 우선 건강하시고 인복, 건강복, 재물복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느덧 대망의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닭이 새벽을 가르는 울음소리에 맞춰 논밭 일구러 다니던 옛 어른들의 모습이 생각나네 요. 잘 아시다시피 2017년 정유년은 60갑자 중 34번째 해인 붉은 닭 의 해입니다. 정유년의 ‘정’은 ‘불의 기운’, ‘붙다는 것은 밝다’를 의미하고 총명한 닭의 해라고도 풀이합니다. 예로부터 과거 우리 선조들은 닭을 봉황에 비유하기도 하고 액운을 막아주고 행운을 가져다주는 길한 존재로 여김은 물론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짐승으로 여명과 축귀를 상징하는 상서로운 새로써 밤을 지배하던 마귀나 유령이 물러간다고 생각하기도 했었기에 전통사회에서는 닭의 피에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는 영묘한 힘이 있다고 믿어서 마을에 돌림병이 돌면 피를 대문이나 벽에 칠하기도 했답니다. 뿐만 아니라 다섯 가지 덕(문, 무, 용, 인, 신)을 갖춘 존재로 닭을 칭송하며 상서롭게 여겨서인지 닭의 해에 태어난 사람들이 대체로 기백이 있고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많다고도 합니다. 조선시대 닭의 그림 중 어미닭이 많은 알을 품거나 병아리를 돌보고 있는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자손 번창을 기원하는 의미도 있다고 하며 벼를 쓴 모습의 닭의 ‘벼’는 선비들의 입신출세와 부귀공명을 상징하기도 했는데 과거급제와 다산을 상징하여 선비들의 서재에 닭의 그림을 걸어두기도 했답니다. 이렇듯 매 12간지의 뜻이 보다 긍정적이며 희망의 좋은 뜻과 내용이 담겨있는 것을 보면 우리 선조님들께서는 늘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뿌리중의 참뿌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옛 생각을 하면서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추억을 먹고 사는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젊은 나이임에도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벌써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을 보면, 그만큼 저 자신의 추억도 쌓이고 있다는 생각이 감히 듭니다. 다사다난이라고 하기에는 표현이 부족할 것 같았던 2016년을 돌이켜

보면 참으로 한심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누구의 탓도 있겠지만 내 자신을 먼저 탓하고 남의 허물을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흔히 우리 인간은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 선제적으로 남의 허물을 벗기고 남을 공격하며 자신의 허물을 상대적으로 은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마다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라는 말을 거침없이 해대는 일부 정치인들을 볼 때 마다 과연 저 사람의 감추어진 허물은 어떻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당대에 밝혀지지 않은 선행과 업적이 훗날 후대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과연 지금의 나 그리고 지금의 우리에게 대한 후손들의 평가는 어떻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인터넷으로 공부할 수 있는 이때에 마지막 활자판의 대동보를 편찬한 것은 한편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봉회 대중회장님’을 위시하여 전 임원님들 그리고 대동보 편찬위원님들의 협조로 꽤거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금년 새 회장님을 모시고 새 출발하게 될 때에 전임 회장님에 대한 노고를 꾸밈없이 치하하고 새 회장님의 행보에 모두가 협조하고 하나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실천하며 더욱 분발하게 될 때에, 그것이야말로 누구의 탓을 하지 않으며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며 진정한 화합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고려충신 충렬공 김방경 선조님을 중시조로 하는 우리 안동김씨 일족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특히 그동안 많은 사비조차 출연하시며 만 6년간을 회장이라는 직분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전국 방방곡곡을 동분서주하시며 각 종파 또는 일개의 중친들까지 챙겨 오신 ‘봉회’회장님의 활약을 지면으로나마 다시 한 번 더 감히 치하 드리며, 큰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드리면서 모든 안동김문 중친 여러분의 보다 희망적이고 밝은 것을 의미하는 닭처럼 좋은 결실을 갖추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십시오.

- 판서공중회 회장 중묵 -

새해 인사드립니다. 문영공중회

정유년엔 남북통일이 되었으면



2016년은 대내외적으로 정말로 다사다난 했던 한해였습니다. 밖으로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후임으로 우리들에게 낯설고 보기에다 섬뜩한 트럼프라는 기인(奇人)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전 세계 나라들이 안절부절 하고 있으며, 세계 2차 대전에서 일어난 위안부 관계로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설치해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북한의 핵전쟁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사드배치로 중국과도 외교적 파열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대내적으로는 우리가 격고 있는 대통령 탄핵사태와 최순실 특검을 놓고 최악의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대행을 하고 있지만 나이든 우리세대는 아무래도 선장 없는 대한민국 배가 나침반을 잃고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 같아 어디로 가는지 두렵기만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불현듯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민족의 지도자이며 안동김씨의 핏줄을 이어받으신 영원한 애국자 백범 김구 선생님입니다. 백범선생은 70여 년 전 남, 북이 서로 다른 정부를 수립하고

있을 때 38선을 넘나들며 통일된 정부를 수립해야한다며 끝까지 온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정부와 김일성정부가 각각 따로 수립되고 말았습니다. 백범선생은 “하느님이 나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첫째도 통일, 둘째도 통일, 셋째도 통일된 정부”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지하에 계신 백범선생께서 조국이 분단되면 언젠가는 국가적 위기가 올 것이라는 선견지명(先見之明)에 그렇게도 통일을 외치셨을 것입니다.

이제 정유년에는 선생님의 소원인 남북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계신 우리 안동김씨의 혈족들도 만나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안동김씨 종인 여러분! 지난해에는 역사에 영구히 보존할 대동보를 발간하였습니다. 대중회 봉회 회장을 비롯하여 편찬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유년 새해에는 봉회 회장께서 6년간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명예롭게 퇴임합니다. 그리고 신임회장을 모시게 됩니다. 우리들은 신임 대중회장을 위주로 화목 단결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대중회 발전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끝으로 정유년에는 종인(宗人)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문영공중회 회장 영만 -

새해 인사드립니다. 개성윤공파종회

대한민국의 모든 성씨가 부러워할 멋진 전자 족보를 기대해 봅니다.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잡을 수 없는 것이 '가는 세월'이라 했던가요?
거짓 없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발음하기조차 거북했던 지난 병신년은 나라 안팎으로 어수선 한 해였습니다.
특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어이없는 사건의 연속으로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말이 실감나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멋진 결실을 거둔 것은 우리 안동김문 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년여의 각고 끝에

'2015 을미보' 완성이란 위업 달성이 그것입니다. 30여년 간격으로 만들어지는 족보지만 특히 이번 을미보는 종지로 만들어진 마지막 족보란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 것 입니다. 파종회장으로서 참여했던 저는 개인적으로 큰 영광임은 물론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동보 작업으로 맘을 홀린 봉회 대종회장님을 비롯해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유년은 붉은 닭의 해라고 합니다. 좋은 기운을 받아 또 한 번 대한민국의 모든 성씨가 부러워할 멋진 전자족보를 기대해 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내 평온하시기를 빕니다.

- 개성윤공파 회장 이경 -

새해 인사드립니다. 밀직사사공파종회

宗親間 諸般事 家內 一率이 周周大安하시기를 祈願합니다.



送舊迎新 多事多難 했던 丙申年度는 永遠히 混濁한 狀態로 저물어 陷沒하고 只今은 大望의 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丁酉年 새해에는 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 하였듯이 自身の 修養은 勿論이요 宗親間 諸般事 家內一率이 周周大安하시고 恒常 健康하시기를 祈願합니다.

그리고 오늘에 大同譜가 完成 頒帙까지는 不斷한 努力 始終一貫 熱과 誠을 다하여 積極協助하여주신 大宗會長任, 事務總長任 그리고 經理部長任, 各派 主管者 여러분 眞心으로 感謝드리며 끝으로 恒常 幸福 하세요. 감사합니다.

- 밀직사사공파 회장 재영 -

새해 인사드립니다. 군사공파종회

대종회의 무궁한 발전을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붉은 닭띠 해입니다.
새벽의 정적을 깨는 닭의 울음소리는 새 아침과 새 시대의 시작과 희망을 알리는 메시지라고 합니다. 올 정유년도 송조돈목이라는 종친회 본연의 임무와 우리 군사공파종회가 더욱 발전하고 풍요로워지는 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지난해 보내주신 종친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종친 일가 여러분들도 새해에는 붉은 닭의 기운을 받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신 모든 일들이 이뤄지는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하며 대종회의 무궁한 발전을 축원합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군사공파 회장 홍수 -

새해 인사드립니다. 전서공파종회

종친회 목적사업은 소통과 화합입니다.



丁酉年 여명이 온 누리를 밝혀 새 생명을 박동하게 합니다. 존경하는 63만 안동김씨 종친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서공파 종친회장 홍식 인사 올립니다.
충렬공 방자경자 할아버님의 유업을 받들어 종무를 진행하며 자손으로써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979년 이후 36년 만에 안동김씨대종회 족보편찬 완성. 천년의 역사를 “枝萬根同(지만근동), 崇祖愛族(송조애족)” 혈육을 하나로 연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종친 한 분, 한 분 소통하며 세, 대, 조, 생년 등 수차례 교정 후 많은 절차를 거치는 동안 저 또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특히 대장정에 불철주야 혼신을 다하신 봉회 대종회장님과 각 편집위원님, 사무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안동김씨 종친님 충렬공 선조님께서는 국난이 닥치면 忠則盡命(충칙진명)하시었습니다. 지금 정치경제 사회가 어려운 시기라 합니다. “和而不同(화이부동), 즉 군자는 모임은 하되 뇌동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유년 아침 대동단결하여 주인이 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오며 부디 63만 안동김씨 종친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 전서공파 회장 홍식 -

새해 인사드립니다. 문온공파종회

門中文化가 후손들에게 이어져 가도록 힘 모아 정진합시다.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현종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대동보의 발간을 위해 여러분들의 진심어린 노고 덕분에 전 12권의 족보가 완간되어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권은 1,3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우리 문중의 자료를 가감 없이 등재하여 후손과 후학들에게 문중 자료로써는 물론이고 역사자료로 활용하는데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나라가 없어져도 백성이 살아있고 백성의 정신이 올바르면 다시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고 옛 성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동김문의 종사도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의 송조정신이 무디어졌다고 지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연 선조님의 정신을 제대로 배우고 익혀서 후손들에게 얼마나 전해 주려고 노력했는가를 반성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안동김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우리 문중문화가 후손들에게 이어져 가도록 힘을 모아 정진합시다.

- 문온공파 회장 영환 -

새해 인사드립니다. 부사공파중회

닭의 氣象처럼 꿈과 희망이 깨어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丁酉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副使公派 宗會長 元鎬(戶籍名 天鎬)입니다. 제가 宗事일에 參與한지 4年 餘가 지난 짧은 期間 동안 大宗會 여러 어르신으로부터 崇慕 思想과 祖上님들의 護國 思想을 새로이 알게 되었으며 宗親會의 所重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年末 大同譜 印刷完了 및 配布 단계에서 不美스러운 訴訟 事件이 發生하였다는 消息에 많은 걱정을 하였습니다만 그러한 迂餘 曲折도 무사히 넘기고 編纂된 首卷과 子孫錄을 받아보니 기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동안 乙未 大同譜 編纂에 苦生을 많이 하신 大宗會長님을 비롯하여 大同譜編纂委員 여러분들의 勞苦에 眞心으로 感謝드립니다. 또한 任期가 끝나시는 鳳會 會長님 任期 동안에 하신 乙未 大同譜 發

刊事業 完成, 忠烈公 800周年 紀念 學術大會 開催 등 크나큰 足跡을 남기시고 大宗會를 더욱 發展시키신 大宗會長님께 다시 한 번 感謝드립니다. 今年은 새로운 大宗會長님을 모시는 해로 알고 있습니다. 무릇 모임에는 多樣한 목소리의 構成員이 있습니다. 大宗會에도 15個 小門中이 있고 各 門中의 多樣한 意見이 있을 수 있기에 지난번 大宗會長님 連任 過程에서 있었던 宗親間 反目과 葛藤이 이번에는 發生되지 않도록 모든 任員의 滿場一致로 새로운 大宗會長님이 選出되어 宗親間 더욱 敦篤한 親睦으로 大宗會가 더욱 發展되었으면 합니다. 宗親어르신! 丁酉年 붉은 닭의 해 “닭의 氣像처럼 꿈과 希望이 깨어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祈願하며, 宅內 행운과 家族들이 健康하게 지내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 부사공파 회장 원호 -

새해 인사드립니다. 안정공파중회

붉은 닭의 의미처럼 새해에는 만사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16년을 아쉬움 속에 보내고 희망의 2017년 정유년(丁酉年) 아침이 밝았습니다. 혹한의 겨울도 따사로운 봄 앞에 선 조용히 자리를 내어주듯 고단했던 지난 기억은 저문 해와 함께 떠나보내고 2017년에는 평화와 행복 건강과 만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종친님들의 한결같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그 깊은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종친간의 화합

(和合)과 발전(發展)을 위한 사명(使命)을 위해 올 한해도 더욱 힘차게 정진(精進)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로부터 배우고 현실에 충실하면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것입니다. 현실은 매우 혼돈스러운 사회이지만 우리부터 새롭게 변화되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특별히 2017년은 ‘붉은 닭의 해’라고 합니다. ‘어둠속에서 빛의 도래를 알리며 만물과 영혼을 깨운다.’는 붉은 닭의 의미처럼 새해에는 만사가 형통하고 날마다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 안정공파 회장 홍기 -

새해 인사드립니다. 도평의공파중회

서로가 아끼고 위하여 협동정신과 화목한 분위기를 갖도록 노력합시다.



안녕하십니까? 丁酉年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새벽을 알리는 우렁찬 닭의 울음소리와 함께 새해에 각종친 덕내와 각처소마다 행복이 가득하고 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 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병신년은 우리 대중회는 물론 국내외적으로도 무척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먼 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대중회 숙원사업이었던 대동보(乙未譜)를 봉회 대중회장님을 비롯하여 편집위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여 성공적으로 출판하였습니다. 금번 大事는 우리 安金의 저력을 과시하였고 무슨 일이든 ‘하면 된다’는 본보기를 보였습니다. 祖上의 발자취와 行跡

을 돌아보고 위상을 높이는 것은 후손된 도리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일로서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후손들에게 윤리와 도덕, 충효와 예의에 대한 정신을 물려주어야 하겠습니다. 명사초청 강의도 듣고 출판물도 편찬 보급함으로써 배움의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나부터 大宗會를 위하여, 吾門中을 위하여, 가까운 친척을 위하여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실천하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佛家에서는 ‘길을 가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하였는데 천륜과 인륜으로 맺어진 우리 종인들은 서로를 아끼고 위하여 협동된 정신과 화목한 분위기를 가지도록 노력할 것을 제의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신임 대중회장을 모시게 되니 위선 사업을 멋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줍시다. 감사합니다.

- 도평의공파 회장 영복 -

새해 인사드립니다. 대호군공파중회

새로 발간된 대동보를 후손들이 자랑스럽게 보고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종친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하고 복된 한해가 되길 빕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기다렸던 대동보가 발간되어 각 가정에 배달되었을 것입니다. 종중에서 수고하신 수단위원과 소문중 수단위

원님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37년 만에 새로 발간된 대동보를 후손들이 자랑스럽게 보고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大護軍 자손들이 서로 힘을 합해 선조님의 뜻을 받들고 安東金씨 자손으로 긍지를 가지고 지낼 수 있도록 새해에도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 대호군공파 회장 태식 -

새해 인사드립니다. 제학공파중회



건강한 육체에서 건전한 사고가 잉태된다.

현종 어르신들 안녕들 하셨습니까? 저는 제학공 24대손 천응(天應)입니다. 새해 정유년(丁酉年)을 맞이하면서 주고받는 인사 중에 덕담은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말일 것입니다. 주고받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는 “건강”과 “복”을 기원하는 우리 민족의 오랜 미풍양속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건강한 육체에서 건전한 사고가 잉태된다.”는 말처럼 건강은 바로 한 인간의 판단과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요. 지난 1월 12일 제학공파 이사회회에서 파중회장을 선임하여 수락은 하였습니다만 명문거족인 안동김씨의 종사를 운영하며, 회장직을 원만히 수행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제가 공직 정년을 맞이하고 종사에 열심히 참여하였습니

다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저는 항상 기러기의 세 가지 덕목을 좌우명으로 생활의 지혜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질서의 덕목입니다. 기러기는 대열을 형클어뜨리지 않고 일사불란한 자세로 질서정연하게 날아갑니다. 둘째는 신애의 덕목입니다. 기러기는 서로 믿고 서로 사랑하는 일부일부제(一夫一婦制)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결혼 때 나무로 만든 목안(木雁)을 가지고 가며 오늘 날에도 이 아름다운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셋째는 점진의 덕목입니다. 기러기는 비둘기와 같이 평화로운 새입니다. 약해 보이는 듯한 몸매와 날개를 가지고 수만 리를 쉬지 않고 꾸준히 날아가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승조 목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힘을 모을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상기하면서 현종 여러분들 내내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제학공파 회장 천응 -

새해 인사드립니다. 익원공파중회



선조님의 유훈을 받들어 종문 발전을 위해 다 함께 나아가자.

존경하는 종친 여러분, 희망찬 정유년을 맞이하여 종친 여러분의 만복을 기원합니다. 저는 익원공 회장으로서 여러 종친 어르신들의 염려와 사랑에 힘입어 어느 해보다도 뜻깊은 한해를 보냈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익원공중회 중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더욱 견실한 재무구조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도 익원공중회는 종친 여러분의 기대와 신뢰에 부합하여 그동안 이룬 기반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는 정유년이 되도록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종친 여러분께서 기다리시던 대동보가 성공적으로 편찬되어 여러분 가정에 배송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대동보 편찬에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을 드리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대종회 발전에 열정적인 협조를 해주신 모든 종친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6년 동안 오직 종친과 종회 발전을 위해 대종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무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명실상부한 명문거족의 대종회로 자리매김해 놓으신 봉회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명문 종회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선조님들의 유훈(遺訓)을 받들어 종문 발전을 위해 다함께 나아가야겠습니다. 여유 넘치는 종문을 만들어 종친과 종문문화가 조화를 이루도록 다함께 힘을 합쳐 매진해야겠습니다. 끝으로 새해를 맞아 종친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만사형통 하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익원공파 회장 석한 -

새해 인사드립니다. 서운관정공파중회



돈친 화목하고 더욱 발전하는 한 해가 되자.

안녕하십니까? 서운관정공파 김철호 회장입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종친여러분의 건강과 가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김씨는 닭과의 관계가 깊습니다. 시조 김알지의 탄강신화에도 나오듯 나무상자가 걸려 있는 큰 나무 밑에서 흰 수탉이 울고 있어 호공이 이를 발견하고 왕에게 아뢰어 데려온

즉, 아이가 있어 김알지라 이름지었다하니 닭은 인류의 탄생을 알리고, 새벽을 여는 것을 보면 상서로운 동물이 아닌가 합니다. 이번 정유년은 오행으로 붉은 닭의 해입니다. 더욱 신성시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난국, 난세를 뒤로하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여는 해로 대종회를 비롯한 파중회가 돈친화목하고 더욱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서운관정공파 회장 철호 -

새해 인사드립니다. 정의공파중회



정유년 새해 건강하시고 웃으시면서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각 파중회 종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새해를 맞아 종친님들의 가정에 행운과 만복이 가득하길 소망 하면서 새로운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나날이 되길 기원 드립니다. 돌아보면 지난 한해는 나라에 크고 작은 일들이 너무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으며 경제성장을 역시 하락하고 어수선한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종회에서는 1979년 이후 다시 대동보를 발간하게 된 것을 무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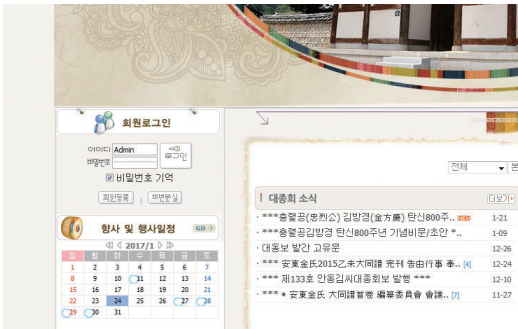
기쁘게 생각 합니다. 깔끔하고 세련되게 제작된 대동보를 보니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대동보 편찬을 위해 고생하신 대종회 김봉회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및 수단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종친 여러분! 정유년 새해에는 기쁜 마음으로 반갑게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직 열어보지 않은 보물 상자 같았으면 합니다. 자신만의 보물 상자를 열고 하루에 하나씩 보물을 꺼내는 기분으로 시작한다면 정말 의미 있고 뜻 깊은 한해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유년 새해는 내내 건강하시고 기분 좋게 많이 웃으시면서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 정의공파 회장 태석 -

안동김씨 인터넷족보 열람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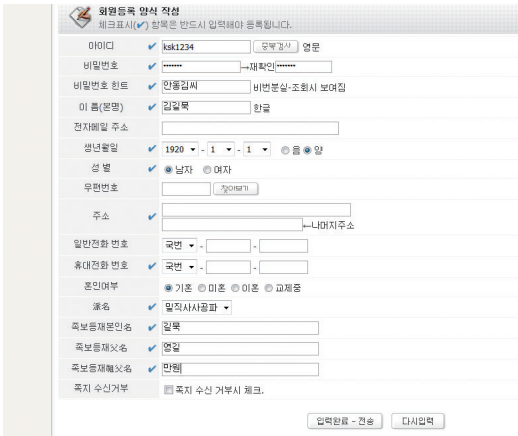
1. 인터넷에서 검색창에 안동김씨대중회를 입력한다.



2. 안동김씨대중회 홈페이지 화면이 보이면 왼쪽 회원로그인란에 회원등록을 입력하여 내용을 기록한다.



3. 족보에 기록된 본인 이름 및 부명 조부명을 정확히 기록한다.



4. 입력 완료-전송 클릭하면 회원 등록이 완료되며 대중회는 심사 후 결격 사항이 없으면 회원자격을 부여한다. (승인불허 ① 2015 을미 대동보 불참여자 ② 족보 미등재로 보명이 없는 자 ③ 허위 회원 등록자 ④ 대중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자 ⑤ 기타 승인 불허 사정이 있는 자)

5. 회원승인이 완료되면 안동김씨대중회 홈페이지 모든 게시판의 게시물을 볼 수 있으며 글을 올릴 수 있다.

6. 인터넷족보 열람은 해당 파종회로 연락하여 승인을 요청하면 확인 후 열람을 허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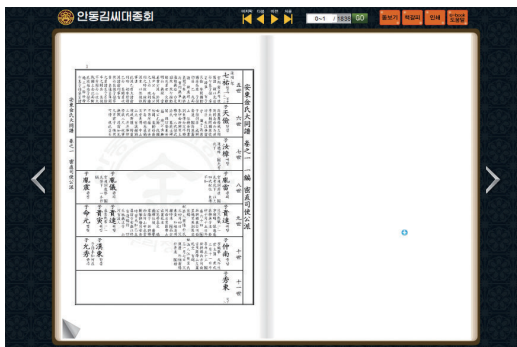
7. 메인화면 상단의 인터넷족보, 문헌(수권), 화보 메뉴를 선택하여 클릭하고 화면 중앙에 인터넷족보 열람을 클릭한다.



8. 인터넷족보 검색란에 ① 본인 족보이름 ② 부친 족보 이름 ③ 파명을 기록하고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책보기의 책 그림을 클릭하면 족보를 볼 수 있다. 이름으로 찾을 수 없는 경우 족보에 기록된 자 호 초명 일명 관직 학교 등을 본문 검색란에 입력하여 찾을 수 있고 권별 페이지를 입력하여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름으로 검색할 때 세는 기록할 필요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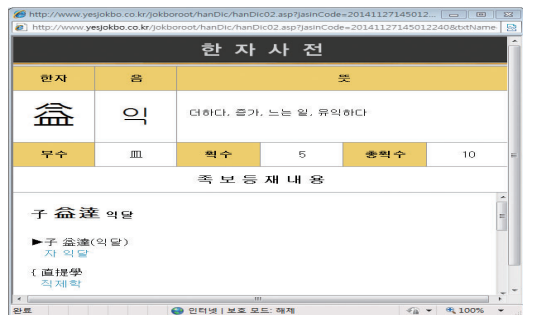
책장 넘기기는 좌우 화살표를 클릭하고 보명을 더블 클릭하면 확대 화면으로 볼 수 있다. 인쇄를 클릭하여 복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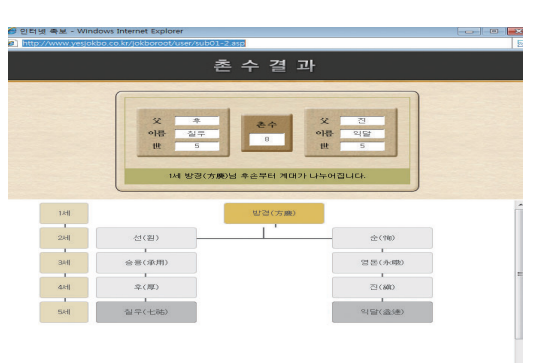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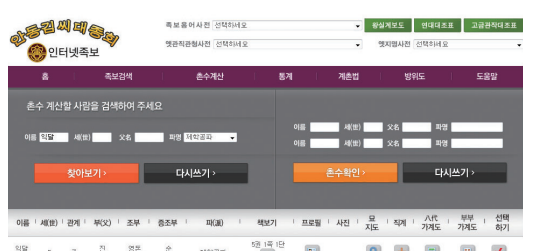
9. 상계 찾아보는 법은 보명 밑에 기록된 전상 페이지를 상단에 입력하고 GO를 클릭하면 상계를 볼 수 있으며 하계는 하단 견하 페이지를 같은 방법으로 입력하여 찾아볼 수 있다.



10. 보명의 한자 찾아보기는 보명을 길게 클릭하여 볼 수 있다.



11. 촌수 계산을 클릭하고 본인명과 부친명을 기록하고 클릭한 다음 우측 선택하기를 클릭하여 입력하고 좌측 다시 쓰기를 한 후 같은 방법으로 입력 클릭하여 촌수를 확인할 수 있다.



충렬공(忠烈公) 김방경(金方慶) 탄신800주년 기념비 제작 및 준공 업체선정 도급계약



2016.12.29 충렬공(忠烈公) 김방경(金方慶) 탄신800주년 기념비 제작 및 준공 업체선정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념비를 제작중이다.

2013년 충렬공(忠烈公) 김방경(金方慶) 탄신 80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기념비를 건립하기로 정하고 건립 장소로 안동시 웅부공원. 영호루 주변. 강변소공원 등을 선정하여 안동시에 요청하였으나 여러 차례 미루어오다 불가 통보를 받고 후선책으로 음수재 앞 마당에 건립



하기로 하였다.

석재는 국내산 보령토종오석으로 L3m H1.4m 두께0.5m이며 받침대는 화강석으로 H0.8m이다.

업체는 충남 보령시 웅천읍소재 보령예석조경사이며 제작과 설치일체를 완료하는 계약을 하였으며 비명은 進中(都)이 짓고 在峻(書)이 쓰고 비문은 榮煥(文)이 지었다.

충렬공(忠烈公) 김방경(金方慶) 탄신800주년 기념비

충렬공은 신라 경순왕의 후손이며 한림학사 김효인(金孝印)의 아들로 고려 강종원년 (서기 1212년) 안동 회곡에서 태어나 조부 김민성(金敏成)으로부터 학문을 닦고 상락대에서 무예를 연마하였다.

1227년 16세에 양온사동정이 되고 대정태자 부견룡을 거쳐 산원 겸 식목녹사가 되고 감찰어사를 거쳐 36세(1247년) 서북면 병마판관에 이르렀다. 이때 몽고병이 침입하자 주민들과 함께 위도에 들어가 저수지를 만들고 제방을 쌓는 등 농토를 개간 농사를 지으며 몽고에 대항하여 주민을 보호하였다.

1249년(38세)에 전룡행수로서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 잡고 좌중금지우섭장군 겸 급사중어사 중승이 되어 엄격한 법 집행으로 관리들의 모범이 되었다. 1263년(원종3) 지어사대사에 승진하였고 뒤에 상장군으로서 남경유수로 좌천되었으나 전에 서북면병마판관으로 있을 때 선정을 베풀었기 때문에 서북 여러 성에서 진정이 있어 다시 판예빈성사북계 병마사가 되었다. 형부상서 추밀원부사를 거쳐 1269년(원종10년) 원나라에 사신으로 가 있을 때 임연이 원종을 폐하고 안경공창을 세우자 원나라 황제 세조가 보낸 2천군사와 함께 임연을 치려고 대동강에 도달하였을 때 몽고군이 대동강을 절대로 넘지 못하도록 하였고 왕이 복위된 것을 알고 다시 북경으로 돌아갔다. 1270년 배중손 등이 승화 후 온을 왕으로 추대하고 삼별초를 이끌어 난을 일으켜 진도로 들어가 연안을 침범하자 이듬해 몽고의 장군 혼도, 홍다구 등과 함께 진도를 함락시키고 수태위중서시랑평장사가 되었다. 삼별초의 장수 김통정 등이 남은 무리를 이끌고 탐라에 들어가서 성곽을 쌓고 항거하자 1273년(원종14년) 행영 중군 병마원수로서 원나라 장군 혼도, 홍다구와 함께 삼별초를 쳐서 이를 완전히 평정했다. 이에 최고위직 문하시중이 되고 원나라에 들어가 세조로부터 환대를 받고 돌아와서 개부위 동삼사의 작위를 더 받았다. 1274년 충렬왕이 즉위하자 원나라에서 함포에 정동행성을 두고 일본을 정벌할 때 동남 도도독사로 출정 2만5천명의 여원연합군과 함께 대마도를 친 다음 본토로 향하는 도중 풍랑으로 패하고 돌아왔다.

1275년(64세) 관제개편으로 관직이 첨위중찬이 되었다. 1278년에는 앞

의 일본 정벌 중에 좌군사 김신이 익사할 때 이를 구하지 않았던 위득유를 파면하고 진도의 삼별초를 공격할 때 전투를 소홀히 하고 재산을 약탈한 노진익의 가산을 몰수케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이들로부터 국왕과 원나라 공주 및 다루가치를 제거하고 강도에 들어가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 는 무고를 받았다.

이에 혼도 홍다구로 부터 혹독한 고문을 받고나서 청도로 귀양 갔다가 충렬왕의 변호로 석방되어 다시 첨의중찬 상장군 판감찰사가 되었다. 1281년(충렬왕7년)원나라가 다시 일본 정벌을 할 때 고려군 도원수로서 중군 일본 이끼섬을 거쳐 하카다에 이르러 승리를 거두었으나 태풍과 적의 기습을 당하여 참패하고 돌아왔다. 1283년(72세) 수차례 사직을 청 하여 추충정난원정공신 삼중대광첨의중찬 판전리사사세자사로 10년간의 수상직을 퇴임 하였다.

1295년(84세) 첨의중찬의 상위직으로 새로 생긴 첨의령을 더하고 상락군개국공 공작의 작위가 내려졌으며 식읍 삼천호 식실봉 삼백호를 하사 받았다. 1300년(89세)에 개경에서 흥서하니 유언에 따라 안동녹전에 안장하였다. 충선왕은 다시 벽상삼한 삼중대광 선충협모 정난정국공신을 추증하고 충렬공의 시호를 내리면서 왕명으로 신도비를 세우니 우리나라 신도비의 역사가 이로써 시작되었다.

안동김씨에서는 충렬공 김방경을 중시조로 삼고 세수를 정해 내려오며 그 후 수많은 충신과 인재를 배출 하였다.

2012년 탄신800주년을 맞이하여 안동시와 안동김씨대중회에서 공동 주관으로 기념행사를 성대히 거행하였으며 아울러 충렬공김방경 논문집을 간행하였고 충렬공김방경기념사업회에서는 탄신800주년기념 충렬공김방경자료집성 전3권을 출판하였다.

2013년 4월 한국중세사학회 주관으로 기념학술대회가 안동 시민회관과 서울 백범기념관 에서 수많은 후학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에 안동김씨대중회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다.

서기 2017년 2월 11일
安東金氏大宗會 會長 金鳳會
－ 碑銘은 進中(都)이 짓고 在峻(書)이 쓰고 碑文은 榮煥(文)이 짓다－

安東金氏 2015 乙未大同譜 完刊 告由行事 奉行

2016. 12. 23(금) 오전11시 안동김씨2015을미대동보 완간 고유 행사를 서울 휘경동 대종회관 회의실에서 총렬공 증시조님의 영정을 모시고 간소하게 봉행하였다.

회장단 및 대동보편찬위원 수권편찬위원 등 대동보 간행에 수고 해주신 임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행사에서 그동안의 편찬 경위와 완간을 고하고 대동보 전질을 봉헌하는 예를 하였다.

영환 수권편찬위원장이 고유문을 봉독하고 대종회장님이 헌작하였으며 35년만의 대동보 간행을 자축하고 긍지를 가지며 종친간 돈독을

굳건히 할 것을 다짐하고 참석자 모두가 의미 있는 행사에 예를 다하였다.

대종회장님의 인사말씀과 문영공종회장 영만님과 익원공파종회장 석한님의 축하 말씀이 계셨고, 수권편찬위원장 영환님의 수권편찬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다. 행사종료 후 인근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종사에 관한 대화로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食費全額을 부담 해주신 석한 회장님께 감사드린다.

記錄/大麓相根

안동김씨 을미대동보 발간 고유문



단기 4349년 12월 23일 을미대동보편찬위원장 봉회 이하 여러 후손들이 상락 총렬공 할아 버님 영정 앞에 모여 아뢰옵니다. 지금 저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밖으로는 주변 4대 강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남

북이 서로 대치하는 백척간두의 절체절명 속에 있으며, 안으로는 대통령 탄핵사태로 국정이 마비되는 지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할아버님의 위대한 치세가 더욱 빛나 보이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3세기 고려국은 무신들의 농단으로 정치는 혼돈의 세계로, 민생은 도탄에 이르렀는데 설상가상으로 세계를 제패한 몽골제국의 침입까지 당하였을 때 할아버님은 밖으로는, 대몽 항쟁의 선두에 서서 싸우면서 오로지 백성들을 보호하는 본분을 다 하셨으며, 안으로는 삼별초의 난을 평정하여 국기를 바로 잡으셨고, 그 후로 몽고와 연합하여 일본정벌을 도모하셨듯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정세 속에서도 오직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고군분투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국가와 민족을 구해 줄 할아버님 같은 위대한 인물을 학수고대하는 것도 온 국민의 바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세태 속에서도 할아버님의 후손들은 곳곳하게, 열심히 적재적소에서 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1979년 기미 대동보를 발간한지 35년이 지나 대동보 간행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파별로 수단책임자를 정해 대동보 발간작업을 시작한지 어언 3년여가 지났습니다. 국내외에 산재해 있는 종인들이 모두 참여하면 사십여 만 명에 이를 것이오나 세태가 변하여 십만여 명만이 참여하여 수권 한 권에 파보 열한 권 도합 열두 권을 한

질로, 총 약 이만 오천 권으로 만들어 각 종인에게 반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대동보에는 수권편찬 작업에 열과 성을 다하여 우리 안동김씨의 역사를 모두 실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무려 1,2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실었으며, 사진자료도 200여 페이지에 달합니다. 제1권에 밀직사사공파, 개성윤공파, 군사공파를 실었으며 제2권에는 부사공파, 전서공파를, 제3권에는 문온공파를, 제4권에는 안정공파, 도평의공파, 대호군공파를 실었으며, 5권에는 제학공파와 판삼사공파를, 6권과 7권에는 안렴사공파를 8,9,10 권은 익원공파를, 11권에는 서운관정공파와 정의공파를 등재했습니다. 아울러서 정보통신시대를 감안하여 이 모든 자료를 인터넷축보화 하여 안동김씨 홈페이지에 등재하였으며, 휴대전화에서도 볼 수 있도록 모바일 축보도 개통할 예정입니다. 축보는 우리 집안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오며 특히 수권에 올린 기록은 우리가 보고 배워서 거울삼아 후손에게 전해야 할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정치를 한 황제로 칭송되는 당태종의 정관정요에 “以故爲鑑 可知興替 以人 爲鑑 可明得失이라” 즉 “역사를 거울삼으면 앞일을 내다볼 수 있고 사람을 거울삼으면 득실을 알 수 있다”라고 했듯이 저희들도 선조님의 역사를 거울삼아 안동김씨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오니 어여뻐 여기시고 굿어 살피 주시옵소서. 이에 간단한 주과포를 올리오니 함향하시옵소서.

2016년 12월 23일 21대손 영환 삼가 지음

별신년 12월 23일 (이월 11월 23일)
전서공파 종친회장 김영환
안동김씨 을미대동보 발간 고유문
35년 만에 발간되는 대동보가 36년이 지나
편찬하였습니다. 조상님 영정의 삼가 올리오나 기념하시기를
바라웁니다. 신기분주 하시어 영구히 보존하게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삼가 고하옵니다.
후손들이 함향하시옵소서.

伏惟 吾門族譜 三十六已過 今茲改編 後孫登載
盡力編纂 顯祖靈前 敬謹獻上 伏望嘉納 神氣保佑
永久保全 謹以 醴齊庶品 式陳薦薦 虔告謹告 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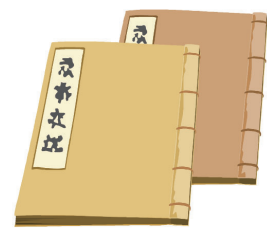
典書公派宗會 乙未大同譜 頒帙 告由祭 奉行

2016.12. 21 오전11시 전서공파종회(회장 홍식)는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 산551번지 전서공 묘소에서 후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조님께 을미대동보가 간행 되었음을 고하였다. 족보를 잘 보존하고 후손들에게는 계보를 알려 뿌리 깊은 명문임에 자긍심을 갖고 종친 간 돈목으로 자자손손 번영하기를 기원하였다.



- 기사, 사진 제공 총무 성화-

양소당(養素堂) 김수녕(金壽寧)의 “수성난(守成難)”



수성(守成)이 창업(創業)보다 어려운 까닭은 무엇인가?
“내가 어린 사람으로 이 나라를 이어받아 지키게 되어 조종(祖宗)의 어렵고도 큰 왕업을 실추시키지 않을 방법을 생각함에 밤낮으로 조심스럽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1453년 가을, 식년시(式年試) 합격자 33명을 모아 놓고, 경복궁 뜰에서 치러진 전시(殿試)에서 내려진 어린 단종(端宗)의 물음[對策問]이다. 선왕이 창업한 국가를 훌륭하게 이어갈 정책 입안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책문(策文)은 그 답안지를 뜻한다.
임금 앞에서 보는 마지막 논술 시험에서 18살 청년, 김수녕(金壽寧)은 수성(守成)의 방책으로 ‘지성무식(至誠無息)’ ‘유시유종(有始有終)’이라는 중용(中庸)의 구절을 인용하여 2천 자(字) 분량의 책문(策文)을 써내려 갔다. 답안지의 요지는 이러하다. “왕은 쉽없이 지극한 정성으로 백성을 돌보는데 시작과 끝이 변함 없어야 한다. 옛날 문제(文帝)와 경제(景帝)는 부지런한 정사로 백성을 부유하게 하였으며, 주(周)나라와 한(漢)나라의 다스림은 형벌을 그치게 하고 감옥을 비게 하는 선치(善治)를 베풀어 백성들이 높이 우리러 받드니 수성(守成)의 방책은 근정(勤政)과 선정(善政)에 있다” 고 역설하였다.
김수녕은 이 책문으로 노사신·성간·손순효·이극기·정극인 등 33명의 실력자 들을 당당히 제치고 장원에 선발된 것이다. 세종조에 태어난 김수녕(金壽寧)은 안동인으로 절충장군 김숙(金肅)의 아들이며, 할아버지는 김익정(金益精)으로 장원급제하여 청요직을 두루 거치고 대사헌(大司憲)·동지총제(同知摠制)·이조참판 등을 지냈으며, 외할아버지 안승선(安崇善)도 역시 장원급제하여 대제학(大提學)에 오르고 찬성(贊成)에 이르렀다. 조부와 외조부 모두 장원급제 했고 그 혈통을 이어 받은 손자 김수녕도 18세에 장원급제하여 명성이 대단했다.
김수녕은 7살에 이미 글을 잘지어 신동(神童)이라 일컬었으며 외조부(外祖父)인 안승선(安崇善)이 기이하게 여기며 “이 아이가 훗날 마땅히 세상에 크게 날릴것이다.”라고 하였다. 김수녕은 16살에 독서당에 들어가 공부하였는데, 이 때의 대제학은 정인지였다. 독서당의 동기인 최항·김수온·서거정·유성원·이극감·이승소·강희맹·허조 등 나이 차가 나는 인생에 훌륭한 선배들이었지만 공부 실력은 그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뛰어 났다. 그러나 김수녕은 38살 이른 나이에 사망하였다. 술을 좋아했던 그는 어느 날 술을 심히 마시고 죽은 것이다. 이 때에 친한 벗들이 안타까움의 만사(輓詞)를 지었는데 내용은 모두가 그의 출중했던 실력을 아깝게 여겼다.
■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 1435~1493)은 김수녕이 이른 나이에 죽자, 그를 추억하는[憶金頤叟] 시를 이렇게 읊었다.
頤叟何年命爾名 어느 해에 그대 이름을 이수(頤叟)라고 지었는가?
少年豪氣壓公卿 소년 때에 호방한 기상은 공경(公卿)들을 압도 했었지.
黃梁一熟邯鄲夢 황량(黃梁)이 한번 익자 한단(邯鄲) 꿈을 꾸었음은 都在伊人歿後聲 모두가 저 사람이 죽은 뒤에 명성일세.
• 이수 : 이수(頤叟)는 김수녕의 자(字)이다. 장수의 의미이나 실제로는 자(字) 덕을 보지 못했다.
• 황량 : 황량(黃梁) 조.수수
• 한단 : 한단지몽(邯鄲之夢)이라는 고사에 당(唐)나라 노생(盧生)이 도사 여옹(呂翁)의 베개를 빌려 잠을 잤는데, 메조[黃梁] 밥 한 번 짓



는 잠깐 동안에 부귀공명(富貴功名)을 다 누린 꿈을 꾸었다. 이수(김수녕)가 어린 나이에 장원급제하여 요직을 두루 거쳤으나 젊은 나이에 죽자 세상의 부귀공명이 덧없음을 비유한 말.
출처 : 국역『매월당시집(梅月堂詩集)』 권지 6 / 시
■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 1431~1492)도 만사(輓詞)를 지었다. 妙齡藉藉桂林魁 젊은 나이에 장원급제로 명성이 자자하여 鰈海人推八斗才 동국 사람들이 팔두재주로 추앙을 했는데 天上玉樓應記罷 천상의 백옥루기 주를 응당 끝냈으리니 廳輪寧爲世間回 바람수레 타고서 어찌 세간으로 안 돌아오려나
• 팔두재 : 시문(詩文)의 재주가 대단히 풍부함을 이룸. 사령운(謝靈運)이 말하기를 “천하 사람의 재주가 모두 일석(一石)인데, 조식(曹植)이 혼자 팔두를 얻었고, 내가 일두(一斗)를 얻었으며, 예로부터 지금까지의 다른 사람들이 일두의 재주를 함께 나누어 썼다.”고 한 데서 온 말이다.
• 백옥루기 : 당(唐) 나라 때의 시인 이하(李賀)가 죽을 적에 천사(天使)가 내려와서 말하기를 “천제(天帝)께서 백옥루를 지어놓고 그대를 불러다가 기문(記文)을 짓게 하였다.”고 한 데서 온 말로, 문인(文人)의 죽음을 뜻한다.

출처 : 국역『점필재집(佔畢齋集)』
■ 달성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은 양소당 김수녕 보다 16세나 연상이지만 둘은 절친 망년우(忘年友) 관계이다. 『사가집(四佳集)』에는 그와 수창한 시가 수 십여 편에 이른다. 서거정이 이백(李白)의 시를 차용하여 김이수(金頤叟)를 곡(哭)하는 만사를 지었다. 生別會相逢 생이별은 다시 만날 수가 있는데 死別終古隔 사별은 진정 만고에 그만이로다 昨日會上賓 어제 고작 인간 세상을 떠나더니 今爲松下客 지금은 술 밑의 나그네가 되었네. 淚滴孔融樽 눈물은 공융孔融의 술잔에 떨어지고 塵滿陳蕃榻 먼지는 진번陳蕃의 걸상에 가득한데 傷心如見君 그대의 얼굴 보는 듯 상심되어라 空梁落月色 공허한 지붕 마루에 지는 달빛이 이백(李白)의 시이다. 四明有狂客 사명에 미친 나그네 있었으니, 風流賀季眞 풍류 넘치는 하계진賀季眞이로다. 長安一相見 장안에서 한 번 서로 만나서는, 呼我謫仙人 나를 적선인謫仙人이라 불렀었지. 昔好杯中物 그 옛날 술을 그리도 좋아하더니, 翻爲松下塵 어느 새 술 밑의 티끌이 되었구려. 金龜換酒處 금 거북으로 술 바꿔 마시던 일, 却憶淚沾巾 생각만 하면 눈물이 건을 적시네.
• 사명광객(四明狂客) : 하계진의 자호.
• 하계진(賀季眞) : 하지장(賀知章)을 가리킨다. 계진은 하지장의 자(字)이다. 하계진은 이백의 천부적인 시적 재능을 알아보고 ‘천상에서 유배 온 선인’이라는 뜻의 ‘적선인(謫仙人)’이라 칭송하였으며, 이백과 하계진은 모두 술을 좋아하기로 이름났는데, 두보(杜甫)는 이들을 포함한 8명을 소재로 <음중팔선가(飲中八仙歌)>를 지어 하계진을 첫 번째 인물로 묘사하였다.
• 서거정은 시적 재능과 술을 좋아했던 김수녕을 하계진에 비유했다.
출처 : 국역『사가집(四佳集)』 제22권
• 사숙재 강희맹(姜希孟 1424~1483)은 김수녕이 병석에 누웠다는 소식을 듣고 지은 시에... 聞君嬰疾臥東牀 그대가 병들어 동상에 누웠다는 소식 듣고 驚駭顛衣又倒裳 깜짝 놀라 저고리와 바지를 바꾸어 입었네 이 밖에도 『사숙재집(私淑齋集)』에 여러편의 관련 시가 전해지며, 강



희맹의 형, 인재 강희안의 행장을 김수녕이 엮었다.

김수녕(金壽寧, 1436~1473)은 자가 이수(頤叟)이고 호는 양소당(養素堂)이다. 28세에 동부승지로 당상관에 올랐으며, 『국조보감』·『동국통감』·『오월춘추』·『세조실록』 등을 찬술하였다. 대사성·대사간·호조·이조·공조참판을 역임하고 가정대부에 올라 좌리공신으로 복창군(福昌君)에 봉해졌다. 문도(文悼)라고 시호를 내렸다. 김수녕은 학문이 해박하고 문장을 짓는 것이 남보다 뛰어났으며, 강직해서 권세와 벼슬이 높은 사람이라도 오래토록 그와 더불어 말을 할 수가 없었으나, 마땅한 사람일 때에는 비록 비천한 선비라도 반드시 신발을 끌고 나아가 맞아들였다. 전하는 글이 많지 않고, 다만 「동문선」과 「동국여지승람」에 여러 편의 시문이 전한다. 창업(創業)보다 수성(守城)이 어렵다. 그러나 근정(勤政)과 선정(善政)으로 백성에게 다가가면 자연히 수성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청년 김수녕의 외침은 그를 장원으로 선발했고, 그 올림은 5백여 년이 흐른 오늘날에도 새겨 들어야 할 명문장이다. 그러나 ‘수성난(守成難)’은 자신의 건강도 예외는 아니어서 38살에 조졸한 김수녕은 정작 본인의 목숨을 지키는 수성(守成)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위정재(爲政者)들이 새겨야 들어야 할 ‘수성난(守成難)’



간신(姦臣)은 주군을 해치지만, 충신(忠臣)은 주군을 완성시킨다.

지나간 역사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정치권에 역사는 없었다. 우리나라의 정치와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새삼 최순실 게이트를 뉴스로 접하면서 역장이 무너진다. 지나간 실패한 정권을 복거지계(覆車之戒)로 삼아 성공한 정권이 되기를 갈망했던 국민들의 꿈을 여지없이 뭉개버린 것이다. 역대 정권은 하나같이 옆에 간신(姦臣)은 있어도 목숨걸고 직언하는 충신(忠臣)은 없었다. 간신은 권력에

게 충성한다. 그러나 충신은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한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불행하다. 역대 정권의 면면을 살펴보면 단 한번도 성공한 권력자가 없었다. 그만큼 유연한 인성과 역량을 가진 리더를 찾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유연한 인성과 역량을 갖춘 혜안(慧眼)이라면 훌륭한 인재를 활용할 수 있다. 『효경(孝經)』에 이런 말이 있다. “천자(天子)에게 직언하는 신하 일곱 명이 있으면 천하(天下)를 잃지 않는다. 제후(諸侯)에게 직언하는 신하 다섯 명만 있으면 나라를 잃지 않는다. 대부(大夫)에게 직언하는 가신(家臣) 세 명만 있으면 집을 잃지 않는다. 선비에게 직언하는 친구가 있으면 명예를 잃지 않는다. 아버지에게 직언하는 자식이 있으면 그 아버지는 불의(不義)에 빠지지 않는다.”

성공한 리더에겐 ‘반드시 직언하는 사람이 있다. 한족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당 태종 이세민(李世民, 599~649)은 중국의 수 많은 황제중에서도 가장 명군(名君)으로 손 꼽힌다. 그의 옆에는 위징(魏徵, 580~643)이라는 훌륭한 참모가 있었기 때문이다. 위징은 언제나 직언을 서슴치 않았다. 그의 굽힐 줄 모르는 직언을 잘 받아들인 당 태종은 자기 수양과 치세에 적극 활용하였다. 그 결과 그의 행적을 기록한 『정관정요(貞觀政要)』는 오늘날까지 제왕학(帝王學)의 기본서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여기에 나라를 지켜가는 수성(守成)의 논리가 이천 년을 넘게 회자(回咨)되고 있는 것이다.

수성(守成)은 대단히 어렵다. 역대 정권을 보면 그렇다. 죽음을 무릅쓴 직언과 굽힐줄 모르는 충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이 시대에 새삼 조선 성종조(成宗朝)의 문신 양소당(養素堂) 김수녕(金壽寧)이 목숨걸고 써내려간 책문(策文)에서 “군주의 마음 가짐은 처음과 끝을 일관되게 유지하여야 한다는 ‘유시유종(有始有終)’의 중용의 도가 생각나는 때이다.

김태영(金泰榮) 군사공파 총무 안동김씨역사연구회 회원

金泰雲이 제소한 대동보 인쇄 및 배포금지 가처분 소 기각결정

2016. 10. 18 김태운(按)이 제소한 안동김씨대동보 인쇄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 소건은 2016년 12월 6일 서울북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판사 오재성, 판사 신서원, 판사 성하경)에서 기각 결정하였으며 본 안 소인 안동김씨대동회에 소가 5,000만 원 채권의 인터넷축보에 김태운 대동보편찬주간 등재 요구 건은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기각 결정 주문

-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유

채권자는 채무자의 지위를 받아 2011년경부터 2013년 8월경까지 안동김씨 대동보의 편찬 주간으로서 대동보 편찬 업무를 주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대동보편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총괄업무를 담당하여 처리하였던 사람인데 채무자가 2016년 9월경 인터넷에 공개한 전자축보(대동보)에 기재된 대동보편찬위원회 임원 명부에는 채권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 하고 후임자만이 기재되어 있어 부당하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안동김씨 대동보의 수권 인쇄 및 배포를 금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의 위와 같은 주장은 채권자가 안동김씨 대동보의 저작자 중 일원으로서 저작권법 제12조에 따라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인 안동김씨 대동보에 채권자의 이름을 표시할 권리를 가지므로, 위 성명 표시권

을 침해하는 내용인 현재의 안동김씨 대동보의 수권 인쇄 및 배포를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따라 금지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인다.

살피건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17호에 따르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 하고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편집저작물이라고 하는바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은 창작성을 핵심 구성요소로 할 것 인데 안동김씨 대동보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아가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는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 이라고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업무상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채권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안동김씨 대동보는 비법인사단으로 보이는 채무자의 기획 하에 채무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작성하고 채무자의 명의로 공표된 업무상 저작물로,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채무자가 그 저작자가 된다.

채권자가 안동김씨 대동보의 저작자가 되기로 정한 계약 또는 근무규칙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채권자는 안동김씨 대동보의 저작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는 저작자가 가지는 성명 표시권을 근거로 안동김씨대동보의 수권 인쇄 및 배포라는 침해행위의 정지를 구할 수 없다. (채무자가 자신의 저작물인 안동김씨 대동보에 대동보편찬위원회의 구성원을 기재하는 것은 채무자의 자율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경현(警弦) 김효건(金孝建)선조 문집 발간 봉정 고유문



유세차 단기 4349년 음력 9월 22일에 ‘충렬공김방경기념사업회’ 회장이며 경현 선조님 11대손 재용(在瑢)은 삼가 고하옵니다.

금년은 선조님의 서거 350주년을 맞는 해로 선조님께서 생전에 남기

신 유고를 모아 『경현문집(警弦文集)』을 번역, 발간하고 봉정 고유제를 올리게 됨을 만시지탄이나마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현문집』은 ‘충렬공기념사업회’에서 선조님의 후손들로 조직된 판결사공 종중의 지원을 받아, 2013년 문중에서 전해지는 선조님의 유고와 산일된 자료들을 수집, 발굴하기 시작하여 2016년 10월, 4년 만에 마침내 『경현문집』전 3권을 국역 완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선조님은 충렬공 방경(方慶)의 어진 후손으로 상락부원군 익원공 사형(士衡)의 8대손이며, 형조참의를 역임하고 영의정에 추증되신 언침(彦沉)의 손자로, 포천 현감 근(瑾)의 장남으로 명가를 이으셨습니다.

삼가 생각해보면 선조님께서서는 일찍이 민족 최대의 위기인 임진란을 겪으시며 학문에 뜻을 두었고, 우리나라와 중국의 고문 및 역사를 꿰뚫었으며, 문과에 급제하셔서서는 청요직을 두루 역임하셨습니다.

문학으로 동궁(시강원)에 계실 때는 ‘쉽 없이 하늘을 운행하는 천체와 같이 단 한 순간도 중단하지 말고 학업에 전념하라’며 소현세자(昭顯世子)를 제왕의 길로 인도하시었습니다. 또한 선조님께서서는 중국과 외교적 갈등에서 빚어진 병자호란의 비극적 전란을 겪으셨고, 내부로는 동인과 서인의 당파싸움으로 혼란하고 험난했던 시기를 조정에서 오직 멸사봉공의 자세로 탁월한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위기를 헤쳐 나가셨습니다.

삼가 선조님의 관력을 상고하건데, 홍해군수, 합천현감, 정평부사 등 외직을 거쳐 사헌부장령, 성균관사성, 좌우통례, 장례원판결사를 역임하셨으며 가선대부 동지충추부사에 제수되고 이조판서에 추증되셨습니다. 만년에는 향리인 이곳 두릉리(杜陵里)에서 집구재(繫驅齋)를 건축하시고 유유자적하시며 일찍이 병자란의 충절 화포(花浦) 홍익한(洪翼漢)선생, 삼전도 비를 쓰고 붓을 꺾은 명필 죽남(竹南) 오준(吳竣)선생, 문장가 동주(東洲) 이민구(李敏求)선생과 용주(龍州) 조경(趙經)선생, 성균관 동문이신 한사(寒沙) 강대수(姜大遂)선생 등 당대

의 많은 명현들과 시문을 주고받으며 교유하시었습니다. 이곳 두릉리 수토산(水吐山)은 우리 13대조 증영의정공, 12대조 증호조참판공, 11대조 증이조판서공의 만년유택으로 수원시 향토유적 제23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어 후손으로서 감회가 깊은 곳입니다.

이제 350여 년이 지난 금일, 우리는 그토록 훌륭하신 선조님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에 더 없는 긍지와 자랑스러움을 가슴깊이 새기며, 오랜 세월 세인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던 선조님의 학문과 사상과 철학이 이번에 발간한 문집을 통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선조님의 넓고 깊은 학덕을 조명해 나갈 것입니다.

돌아오는 11월 11일 ‘한국의 집’에서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오늘 선조님 묘전에서 후손과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경현선조님 대상(大喪)시에 현종(顯宗) 임금이 내리신 치제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선조님을 추모하렵니다.

“행동은 신중했고 중후하였으며, 성품은 인정이 많았고 순박하였도다. 화려하게 수놓은 비단을 걷어내고 세상과 다른 길을 걸었으며 관적에 올라 지금에 이르기 까지 삼대의 임금을 모셨도다. 대성(臺省)에서 치관(豸冠)을 쓰니 조정에 매서운 바람이 불었고, 오랫동안 서연(書筵)에서 강연(講筵)하여 세자(世子)를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였으며, 여러 차례 지방의 수령(守令)으로 나가 다스리면 백성들이 부모라고 하였도다.” 이제 의식에 따라 삼가 주과포를 올리고 선조님의 문집인 『警弦金孝建文集』을 봉정하오니 명계(冥界)에서 음덕으로 도와주시옵기 바라오며 경건히 고하옵니다. 흠향하소서.

－ 기사 및 사진제공 (郡)태영－



(주)兩白 문화재

문화재수리/한옥/사찰/제실

보수단청업 01-16-0042호

대표이사 김진식
(충렬공 27세손, 익원공파)

문화재기능사 대목수 제 4459호
한국미술협회 회원
한국장승진흥회 이사

경북 영주시 하망동 325-19(3F)
TEL. (054)636-1239
C·P. 010-3507-1239
E-mail : ddundol@hanmail.net

성금을 보내주신 종친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 11. 21 ~ 2017. 01. 20)

◎ 평생회비 · 20만원 : (開)영대(현담스님) <계: 20만 원>

◎ 찬조금

· 50만원 : (翼)강식(하남) · 10만원 : (提)규태(서울)
· 5만원 : (都)원회(김제) · 3만원 : (副)하일(서울)
<계: 68만 원>

◎ 통상회비

· 20만원 : (典)양천중중
· 5만원 : (翼)재선(일본) (文)상규(서울)
· 3만원 : (翼)봉수(안동) (翼)재환(서울) (文)삼희(서울)
(提)상기(병천) (按)상백(서울)
· 2만원 : (翼)재택(논산) (翼)원회(용인) (翼)우회(서울) (翼)윤한(논산)
(大)성무(보성) (翼)용백(영주) (典)상식(창녕) (翼)수덕(정읍) (翼)희석(고창) (提)태수(대구) (典)병만(서울) (提)태환(대구) (副)재기(수원) (翼)정회(천안) (翼)수돈(서울) (翼)재형(양양) (按)용호(서울) (提)재철(천안) (翼)수복(임실) (翼)정묵(경산) (提)홍묵(서울) <계: 87만 원>

◎ 임원회비(2016년도)

· 회장 100만원: (都)봉회
· 부회장 20만원: (郡)중묵 (按)영만 (密)재영 (開)이경 (郡)홍수 (典)홍식 (副)원호 (文)영환 (安)흥기 (都)영복 (翼)석한 (書)철호 (正)태석 (翼)해수 (典)춘교 (翼)재남 (翼)태길 (都)정 (提)태선 (按)춘식
· 이사 10만원: (密)재교 (開)웅선 (郡)재하 재이 태영 재구 성묵 (典)용우 관교 (副)종대 규세 창식 태형 (文)영윤 형묵 (安)봉기 (都)시묵 일수 운중 (提)재철 상기 정응 윤철 용향 장응 봉회 용식 운선 (按)재홍 윤회 태영 형남 용원 용주 태선 현수 근식 (翼)영채 윤묵 재원(부산) 재택 성희(부여) 영수 영환 용묵 정묵 종희 재진 선회 (書)돈영 (正)태인
5만원: (典)태진 헌덕 용교 재청 (都)광남 희훈 (提)규철 (按)재웅 흥회 태완 순식 (翼)재영 용세 (文)수길 <계: 1,080만 원>